



스위스 도시에서 아페리티프 한 잔.

스위스의 식전 한 잔 문화 체험

아늑한 풍경 속에서 술 한 잔과 함께 애피타이저
 도심 최고의 아페리티프 바
 도시의 자연 한 조각 속에서 청량한 식전주 한 모금
 현지인들과 어울려볼 좋은 기회

스위스 사람들은 아페리티프(aperitifs)를 좋아한다. 식사 전에 즐기는 한 잔을 말한다. 아늑한 풍경 속에서 술 한 잔과 함께 애피타이저를 즐기는 문화다. 스위스에서 눈에 띄는 도심 아페리티프 바에서 스위스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전통을 즐겨보자.

1. 프라우 게롤즈 가르텐(Frau Gerolds Garten), 취리히(Zürich)

2012년 여름, 임시 프로젝트로 문을 연 곳으로, 비어 가든과 키친 가든으로 구성되어 있는 프라우 게롤즈 가르텐은 이제 스포츠, 아트, 노천 바,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갖춘 힙한 어반 가든으로 확실히 자리 잡았다. 취리히 서부(Zurich West) 지역의 하드브뤼케(Hardbrücke) 역 근처에 있는 취리히 5번 구역에 있는데, 아페리티프 한 잔을 즐기기 위해 만나는 이상적인 가든이다. 햇살 좋은 테라스에서는 철로가 내려다보이는 웅장한 뷰가 펼쳐지고, 날씨가 좋을 때는 저 멀리 산맥이 눈에 들어온다. 메뉴와 주변 환경은 계절에 따라 달라진다.

2. 볼리에르(Volière) – 인젤리(Inseli), 루체른(Luzern)

라디오 3 파흐(3FACH) 방송국이 운영하는 인기 있는 서머 바로, 루체른 호숫가에 있는 인젤리 공원에 있다. 4월부터 9월까지 문을 여는데, 더운 여름날 시원한 음료 한 잔을 즐길 수 있는 완벽한 장소가 되어준다. 볼리에르 바는 로컬 식재료를 사용하며, 다양한 종류의 음료와 메뉴를 선보인다.

3. 아틀리에 클래식 바(Atelier Classic Bar), 툰(Thun)

아틀리에 클래식 바는 툰 한복판에 있는 라트하우스플라츠(Rathausplatz) 광장에 있다. 건물 안의 금고 같은 형태의 셀러는 14 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시크한 분위기를 즐기며 여유로운 저녁을 즐기기에 좋다. 다양한 종류의 클래식 칵테일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아이디어 음료도 정기적으로 선보여 손님들에게 반응이 좋다. 크리에이티브 칵테일 메뉴로 여러 상을 수상한 바 있다.

4. 뱅 드 파키(Bains des Pâquis), 제네바(Geneva)

뱅 드 파키는 햇살을 맞으러 나온 이들과 휴식을 취하기 위해 나온 이들에게 지상 천국이 되어준다. 유명한 젯또(Jet d'eau) 분수 근처에 있는데, 레만(Léman) 호수의 절경을 선사해 준다. 뱅 드 파키 레스토랑은 제네바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장소로, 아페리티프를 즐길 수 있는 완벽한 스팟이 되어준다.

5. 알테스 트람데포(Altes Tramdepot), 베른(Bern)

이제는 베른 미식계에서 빠질 수 없는 명소가 된 곳이다. 알테스 트람데포는 컬트한 공간으로 인식된다. 베른 시민은 물론 전 세계 여행자들이 여기에서 만나 아페리티프 한 잔을 음미한다. 훔 브루로 태어난 트램(Tram) 비어가 이곳의 스페셜티다. 햇살 좋은 테라스에서는 베른의 구시가지와 아레(Aare) 강, 공원의 풍경이 펼쳐진다.

6. 타 카브(Ta Cave), 로잔(Lausanne)



보(Vaud) 주의 역사는 와인과 떼려야 뗄 수가 없다. 이 지역에서 자라는 다양한 품종의 포도를 로잔의 와인셀러, 레스토랑, 와인 바에서 맛볼 수 있다. “타 카브는 스위스 최초의 크라우드 펀딩 와인 바다. 로잔 기차역 바로 옆에 있어서, 퇴근 후 아페리티프 한 잔을 즐기기에 완벽한 스팟이다. 이 바가 최고인 이유는? 펀딩에 참가한 멤버는 갈 때마다 아페리티프 한 잔을 무료로 즐길 수 있다.

7. 다스 로칼 인 데르 로크레미제(Das Lokal in der Lokremise), 생갈렌(St. Gallen)

생갈렌 기차역에서 가까운 곳으로, 과거에 기관 차고로 쓰이던 건물이다. 지금은 독특한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했는데, 생갈렌에서 제일 아이코닉한 건물 중 하나로 꼽힌다. 극장, 영화, 무용, 미술 등 다양한 범주의 문화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로크레미제(Lokremise)에서는 특별한 미식 체험도 즐길 수 있다. 바와 여름에만 운영되는 노천 테이블은 친구들과 함께 생맥주나 칵테일을 즐길 수 있는 완벽한 장소다.

8. 귀터호프(Güterhof), 샤프하우젠(Schaffhausen)

과거에 창고로 사용되던 건물을 개조한 공간으로 퇴근 후 음료 한 잔을 즐길 완벽한 스팟이 되었다. 어디서 마실 지만 정하면 된다. 귀터호프 바(Güterhof-Bar), 라운지, 강가 노천 테이블 중에서 고를 수 있다. “노투르노(Notturmo)”라는 음악제는 샤프하우젠 시민들이 기다리는 행사로, 11월부터 4월까지 라이브 공연을 즐기며 인기 만점 레스토랑의 미식 메뉴를 맛볼 수 있다.

9. 리도 리바 카차(Lido Riva Caccia), 루가노(Lugano)

루가노 한복판, 무제오 다르테(Museo d'Arte) 미술관 건너편에 있는 리도 리바 카차(Lido Riva Caccia)에는 물 위에 떠 있는 목조 데크가 있는데, 마치 보트처럼 물결을 따라 출렁인다. 호숫물에 몸을 담그고 싶다면 데크에서 호수로 바로 뛰어 들 수도 있다. 수영을 하다 보면 호수 주변의 산들이 빚어내는 풍경에 감탄하게 된다. 루가노 호숫가에 있는 수영장(lido)은 퇴근 후 친구들을 만나 아페리티프 한 잔을 즐기면서 노을을 바라보기 좋은 진정 아름다운 곳이다.

10. 올드 크로우(Old Crow), 취리히(Zurich)

취리히 한복판에 있는 “올드 크로우”는 클래식한 스타일과 우아함을 내뿜는 아페리티프 바다. 1,600종류가 넘는 주류 셀렉션이 특별해 유명한 바다. 바텐더가 클래식한 칵테일과 올드 크로우의 특별한 위스키 셀렉션을 선보인다.

11. 트립게 프리쉬루프트바(Triebguet Frischluftbar), 바덴(Baden)

트립게 프리쉬루프트바는 리마트(Limmat) 강가에 있는데, 바덴의 구시가지 뷰도 함께 펼쳐져 아름답다. 산책이나 자전거를 타다가 잠시 멈춰 쉬어가거나, 친구들과 함께 퇴근 후 맥주 한 잔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홈메이드 타파스나 안주를 곁들일 수도 있다.

12. 하이&다(hi&da) 윈터투어(Winterthur)

여행하며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 윈터투어의 “하이&다”는 이 두 가지 테마를 조합해 윈터투어 시민은 물론 전 세계 여행자들에게 미식의 기쁨을 선사하고자 한다. 다양한 향토 메뉴 외에도 전 세계 음식을 맛볼 수 있다.

13. 부베뜨(Buvette)7 – 플로라 암 라이(Flora am Rhy), 바젤(Basel)

여름 동안엔 클라인바젤(Kleinbasel) 지역, 라인(Rhine) 강가를 따라 늘어진 5 곳의 부베뜨(Buvette)에서 시원한 음료와 간단하지만 맛있는 특선요리를 즐길 수 있다. 이런 부베뜨는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되는데, 바쁜 하루를 보낸 후 긴장을 푸는 바젤 시민들에게 무척 인기 있는 곳이다. 잠시 휴식을

Switzerland Tourism.



취하거나 라인 강에서 수영을 즐길 수도 있다. 그중, 플로라 부베뜨는 커피와 맥주를 포함해 다양한 음료와 스낵을 즐길 수 있다.

자료 협조: 스위스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m/ko